

KIA 새 사령탑 조범현씨

호랑이굴 구조조정...조경환 등 선수 14명 방출

올 시즌을 '꿀짜'로 마감한 KIA타이거즈가 새 감독으로 조범현(사진) 포수코치를 임명하는 등 단장 교체에 이어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최일선에서 땀 흘려온 선수들을 첫 타깃으로 잡았고, 서정환 KIA감독도 경질했다.

KIA는 18일 계약이 종료된 "김요한, 손상정, 최재익, 최건호(이상 투수), 김성호, 박경진(이상 포수), 조경환, 황연선, 김경진, 이성준, 박윤식, 최재현, 강명구, 함지웅(이상 야수) 등 총 14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고 자유계약선수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한꺼번에 14명을 퇴출시키는 구조조정은 이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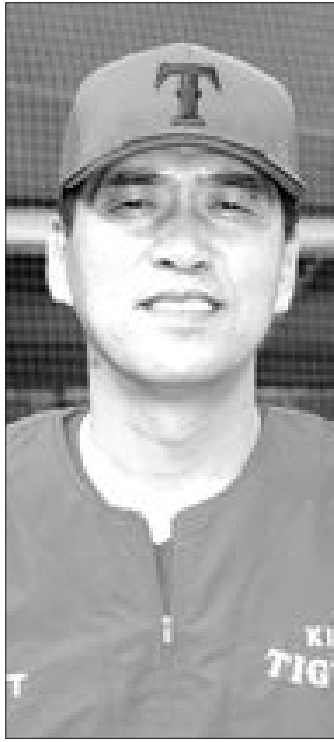
KIA는 이에 대해 "8개 구단 중 가장 규모가 큰 선수단을 슬림화하고 선수들에게 새 동지를 틀 기회를 주려고 일찍 계약을 매듭지었다"고 설명

했다. 하지만 2007시즌 최하위로 추락한 선수단에 대한 경질성 구조조정의 신평탄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 늦게 서울로 올라간 김조호 신임 단장은 "신인 선수들이 들어온 만큼 2008년 엔트리 구성을 위해 불가피 하게 기존 선수중 일부 방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시리즈 3연패의 꿈을 이루지 못한 삼성 라이온즈도 지난 17일 '이승엽 사부' 박흥식 2군 타격코치와 '비운의 투수' 출신 이선희(52) 재할군 코치 등 코치 2명과 베테랑 타자 김종훈(35)을 비롯한 선수 16명 등 18명과 재계약하지 않았고, 롯데도 최근 계약이 종료된 강병철 감독과 계약 연장을 포기하는 등 한국시리즈 진출이 좌절된 6개 구단의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난 15일부터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간 KIA선수단이 스트레칭 훈련에 한창이다. /KIA타이거즈 제공

'인사 태풍'에도 훈련은 계속 된다

KIA타이거즈의 시즌 마무리훈련 일정이 확정됐다.

1, 2차로 나눠 실시될 KIA타이거즈의 마무리훈련은 먼저 20일부터 29일까지 10일간 남해에서 마무리훈련 갖고, 11월 2일부터 29일까지 28일간 일본 미야자키 휴가사에서 2차 마무리훈련 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남해 캠프와 일본 캠프에는 약 6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일본 캠프는 올해 스프링캠프를 차렸던 휴가시 오쿠라가하마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기초 체력훈련과 기술 훈련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선수단은 일본 캠프를 마치고 12월 한 달간 자율훈련에 들어간 뒤 동계합동훈련에 돌입하게 된다.

KIA 내일 마무리 훈련 돌입 내달 2일부터는 러서 캠프

남해와 일본 마무리훈련에 참가하지 않는 재할군 등은 무등경기장과 함평구장에서 훈련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19일 한화와의 시즌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은 KIA선수단은 지난 15일부터 광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마무리 훈련에 들어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2일 대망의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팬트레이스 1위 SK 와이번스와 플레이오프 승자인 정규리그 2위 두산이 22일부터 7전4선승제로 한국시리즈에서 충돌한다.



SK 충분히 쉬었다...사기충천



두산 PO 3연승 무서운 상승세

2000년 창단 후 처음으로 한국시리즈 직행 티켓을 얻은 SK는 첫 우승을 노리고 2005년 삼성에 우승컵을 내줬던 두산은 1982년과 1995년(이상 OB), 2001년에 이어 통산 4번째 정상에 차지하기 위해 도전장을 던졌다.

'우승 청부사' 김성근 감독과 왕년의 홈런왕 이만수 수석코치로 새 코치진을 짠 SK는 올해 그라운드 돌풍을 일으키며 한국시리즈에 선착해 8일부터 인천 문학구장 등지에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해왔다. 이와 달리 두산은 과속의 3연승을 달리며 플레이오프를 돌파한 가파른 상승세가 감점이다.

삼성과 준플레이오프에서 3차전까지 가는 혈투를 벌였던 한화와 달리 5일 간 충분한 휴식으로 결전을 대비할 시간을 벌며 전력 및 체력 손실도 크지 않다.

원투펀치는 두산이 강하지만 SK는 11승을 수확한 채병용이 3선발로 버티고 있어 전체 선발 무계감에서는 막상막하인

SK, 투타 우위...첫 우승 도전

두산, 특유의 뒤틀심 'V4' 자신

SK가 7개 구단 중 유일하게 열세를 보였던 '천적'을 제대로 만난 것이다.

양팀 대결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뒤틀리는데도 외국인 원투펀치의 선발 맞대결.

SK는 케니 레이번(17승)과 마이클 로마노(12승)가 1, 2선발로 나서고 두산은 특급 에이스 다니엘 리오스(22승)와 맷 랜들(12승)이 34승을 합작하며 8개 구단 최강의 원투펀치를 과시했다.

원투펀치는 두산이 강하지만 SK는 11승을 수확한 채병용이 3선발로 버티고 있어 전체 선발 무계감에서는 막상막하인

셈이다. 특히 두산은 24년 만에 선발 22승을 올리며 평균자책점(2.07)과 승률(0.815) 등 투수 3관왕에 오른 리오스가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8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가을 잔치'에서도 위력투를 뽐냈다.

그러나 불펜은 SK 쪽으로 무게감이 쏠린다. 베테랑 조용천과 마무리 정재현 등 잠수함 투수들을 주축으로 윤길현과 가득영도 튼튼한 허리진을 구축해서다. 반면 두산은 마무리 정재현이 확실한 믿음을 주지 못했고 신인 임태훈과 금민철, 이승학도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라는 평가다.

공격력 역시 SK가 다소 우위에 있다. SK는 시즌 팀 타율 0.264로 두산(0.263)보다 근소하게 높았고 특히 8개 구단 중 가장 많은 112개의 홈런을 쏘아 올리는 장타력을 뽐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엄지 수술...올림픽 예선 못 뛴들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이 일본프로야구 시즌을 마친 뒤 관절염을 앓고 있는 왼손 엄지를 수술하고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 나설 대표팀에는 빠지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요미우리 1군 타격 보조 코치로 이승엽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김기태 대표팀 타격코치는 "승엽이가 대표팀에 나가지 않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수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는 뜻이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왼쪽 무릎 관절경 수술을 한 이승엽은 2년 연속 환부에 메스를 대게 됐다. 시즌 초 이승엽의 수술 요구를 묵살했던 요미우리 구단은 수술 여부에 대해 함구 중이다. 17일 도쿄돔에서 만난 한 관계자는 "이승엽이 수술을 선택할지는 알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KIA-한화 리그 최종전

비로 연기됐던 프로야구 팬트레이스 최종전이 포스트시즌 중에 열린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7일 비로 취소된 KIA-한화의 정규리그 최종 경기가 19일 오후 2시 광주구장에서 벌리게 됐다고 18일 밝혔다.

8개 구단 순위가 모두 확정됐기 때문에 이

경기로 인한 순위 변동은 없지만 타격 1위인 이현근(KIA)의 출전 여부가 관심거리다. 타율 0.338을 기록한 이현근은 양준혁(0.337·삼성)보다 1리 앞서 있지만 2타석에서 무안타를 기록하면 순위가 떨어진다.

하지만 이현근은 이미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전에 출전할 국가대표로 선발돼 합숙 훈련을 시작한 터라 한화와의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19일(금)
 - ▲메이저리그 AL챔피언십시리즈 5차전 <보스턴 : 클리블랜드>(08 : 50·Xsports)
 - ▲전국대학배구 종합선수권대회(한양대 : 경기대)(12 : 50·SBS스포츠)
 - ▲WBCF 세계타이틀매치(13 : 00·KB-SNSPORTS)
 - ▲미 LPGA 하나은행-코오롱 챔피언십 여자골프대회 1R(13 : 50·MBC·MBCE-SPN)

- 20일(토)
 - ▲일본 프로야구 플레이오프(요미우리 : 주니치)(17 : 50·SBS스포츠)
 - ▲07/08 프로농구<전자랜드 : LG>(18 : 50·Xsports)

- 20일(토)
 - ▲PGA 프라이스일렉트로닉스오픈 2R(05 : 00·SBS스포츠·SBS골프)

Kwangju Ilbo



풍격, 신뢰, 교양이 있는 신문 격동의 현대사를 지켜온 증인

광주광역시 남구 남산로 100-1

전화: 062-950-1111

팩스: 062-950-1112

홈페이지: www.kwangjuilbo.com

1971년 10월 19일 창간